

2022년 10월 30일(다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31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10 월]



복음화 지향 : 모든 이에게 열린 교회

언제나 복음에 충실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연대와 형제애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아드님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선행의 의지를 키워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저마다 집에 모시고, 땅과 하늘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제1독서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1,22—12,2

<주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십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1-2.8-9.10-11.13ㄷㄹ-14(◎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말씀입니다. 1,11—2,2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3,16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1-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영성체송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던 세관장 자캐오의 집에 들어가 묵으시며,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이태원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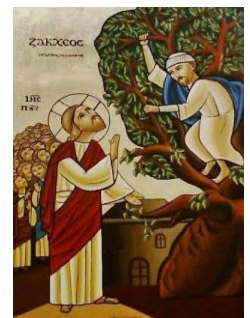
우리도 자캐오 처럼

키가 작은 '자캐오' 라는 사람이 예리코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민족에게 돈을 부당히 많이 받아서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 제국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라는 분이 그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그분은 '죄인의 친구' 라는 말이 있기에 한번 뵈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뵈려고 하는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의 집안에 머무르시는 영광으로 변했고, 그 결과 그와 그 집안이 구원을 얻고 큰 기쁨을 누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이 세상 그리고 인간 본성이 우리를 죄악으로 많이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히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그분에게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고 해방감을 맛보며 전에 전혀 누리보지 못했던 행복감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캐오는 예수님을 뵈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분이 자기 집에 머무시는 영광을 얻었고 또 구원과 함께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고 하느님을 떠난 상태에서 다시 고해성사로 하느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내 집과 내 마음에 모시려고 노력한다면, 자캐오와 같이 구원을 보장받고 큰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연중 제 31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 구절



사람의 아들은 잃은 아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루카 19,10).

'예루살렘 입성 중
나무에 오른 자캐오'
(부분)
지오토 디 본도네 작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전교의 달(10 월) 토막교리 - 어떻게 전교하나요? (생활교리-가톨릭 신자생활 안내서 중 발췌)

선택합니다 : 모든 사람이 다 전교의 대상이지만 한꺼번에 입교시킬 수 없고 현실적으로 입교에 조당(장애)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사람부터 전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 성세의 은총(구원의 은총)은 하느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것이므로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대상자의 마음에 회개의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자신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빌며 하느님의 충실한 도구가 되기를 결심하고 봉헌해야 합니다.

파악합니다 :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종교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성장과정은 어떤지 세밀히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연구해야 합니다.

확신합니다 : 인간의 힘으로 성세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임을 깨닫고 하느님은 누구든지 당신께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 현대 사회는 더욱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자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접근하면 그 대상자는 우리를 따라 오게 마련입니다.

인내합니다 :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바꾸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인도합니다 : 자기 힘으로 대상자를 설득시키겠다는 마음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더 능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공동체 안으로 그를 이끌어 들여야 합니다.

위령의 날(11 월 2 일) 미사 안내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은 죽은 모든 이, 특히 연옥 영혼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날에 위령 미사를 봉헌해 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미사 : 11 월 2 일(수) 오후 7 시, St Vincent de Paul Church, Aranda

위령성월의 8 일(11 월 1 일~8 일)간 묘지 방문 전대사

가톨릭 교회는 '모든 성인 대축일'인 11 월 1 일부터 8 일까지 정성껏 묘지를 방문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위 기간 중에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체를 모시고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체는 전대사를 받기 원하는 날마다 모셔야 하며, 고해성사는 이 기간 중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전대사의 요건 중의 하나인 교황님의 지향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한 번을 바치고, 전대사를 받기 원하는 날에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여 마음속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위령성월(11 월) 미사 전 연도 안내

위령성월 동안 주일 미사 30 분 전부터 위령들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정성스런 참여를 바라며, 올해 선종 2 주년(11 월 9 일)을 맞는 황 프란치스코 신부님(프랭크 페리, Fr Francis John Ferrie)과 올해 2 월 선종하신 두 분의 캔버라교구 은퇴사제(로리 블레이크-Fr Laurie Blake(9 일), 헨리 번-Fr Henry Byrne (15 일))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랭크 페리 신부님]



[로리 블레이크신부님]



[헨리 번 신부님]

로컬 다문화 미사 안내

일시 : 11 월 6 일(주일) 오전 10 시 (※ 이날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장소 : St Vincent de Paul Church (7 Bindel Street, Aranda, 2614)

미사 후 음식나눔·친교 (※ 한복 착용 권장)

전교의 달(10 월) 전교 단체 후원

Catholic Mission 의 전교 활동 후원을 위해 교우분들의 정성스런 봉헌을 바랍니다.

[호주 전교 단체 후원 바로가기-클릭]



| 연중 제 31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19

자연은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대상이 아님을
항상 기억합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6

일주일 1회, 가까운 거리는 도보, 자전거 이용
→ 2,00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어안채

목주 기도 성월
[목주기도, 분심 줄이는 방법]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박상운 토마스 신부님의 목주 기도 강의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11 강]
도대체 파스카가 뭐죠?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탈출기 2부 | 1-18 장(10 가지 재앙)

바로로딸복스앤미디어

교회론 박사 최현순 교수의
시노달리타스 미니 강의 (2 강)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Synodalitas 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 주일 미사 참례자수

10 월 9 일	성인 35 아이 11	10 월 16 일	성인 43 아이 19	10 월 23 일 (성모 행렬)	성인 14
----------	-------------	-----------	-------------	----------------------	-------

□ 우리들의 정성 (10 월 15 일(토)~21 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태룡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교무금 \$520 (9 가정), 봉헌금 \$265							

□ 우리들의 정성 (10 월 22 일(토)~28 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요한	양홍석	주정자			
교무금 \$250 (5 가정), 봉헌금 - (10 월 23 일 주일 성모 행렬 미사 참례)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10 월 30 일, 연중 31 주일) 이국원 필립보 네리, 김미현 보나
(11 월 6 일, 연중 32 주일, 평신도 주일) 로컬 다문화 미사 (※ 이날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11 월 13 일, 연중 33 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30 일) 마태오반 → (11 월 6 일) 요한반 → (13 일) 루카반 → (20 일) 마르코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 주 1 회, 매월 첫째주 식사) : (11 월 6 일) 로컬 다문화 미사 → (20 일, 간식) 마르코반
-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남궁영근 레오(마르코반, 11 월 10 일) 형제님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